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 앞에 순종하며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 악한 세상 가운데 정결함을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고보서 4장 7-8절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5년 2월 22일 (토) 제 2005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 휴대폰 사용 습관,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나의 디지털 선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디지털 시대가 문명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오한 내용을 담은 안톤 바르바-케이의 A Web of Our Own Making을 다시 천천히 읽고 있다. 이 책의 주요 통찰력 중 하나는 인간의 상호 연결성이 디지털 혁명의 영향에서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결과 온라인 생활에 저항하거나 심지어 물러서는 사람들조차도 모든 활동이 근본적으로 디지털에 의해서 형성된 세상을 배경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또한 디지털에 맞게 물리적 환경까지도 (심지어 우리의 몸과 인간관계까지도) 다시 만들고 재구성하려는 유혹의 실체를 폭로한다. 미래 세계는 단지 사람이 AI가 주도하는 가상현실의 메타버스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이미지에 의해 물리적 신체와 장소까지 만들어지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그런 상태를 예상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온라인 세계는 이제 모든 삶의 기준을 설정한다.

바이트로 축소해버렸다. 당신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예배를 방송하는 카메라가 있는 한 예배자의 경험은 바뀔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교인들을 의식하는 목사들, 방송의 기본 문법에 적응하는 예배 인도자들,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교인들이든 관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들이었다. 사람들은 사진 찍는 그들 때문에 스के이트 타던 방향을 바꿔야 했고, 뻔뻔한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눈길을 피하기도 했다. 결국 거기 있는 모두가 셀카 찍기 큐레이팅 공연에 맞춰서 알아서 스के이트 타기를 조정해야만 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외부로 퍼진다. 하루에도 여러 번 당신이 휴대폰과 현실 세계 사이에서 주의를 분산할 때, 당신은 자신의 기대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회적 구조까지도 같이 재편한다.

휴대폰 습관이 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리틀존은 다음과 같이 계속 말한다.

아무도 섬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널리 퍼진 새로운 기술의 영향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 브래드 리틀존은 "대중 속의 나르시시(Narcissus in Public)"라는 글에서 놀라운 사례를 제시한다.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 그는 가족을 국립 미술관 조각 정원의 아이스 링크로 데려갔다. 그들이 본 건 링크를 단지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의 배경으로만 사용하는 젊은 여자

조각 정원의 젊은 여성들은 아이스 링크를 물리적 세계 내의 장소가 아니라 디지털 셀카 큐레이션을 위한 완벽한 캔버스로 보고 있었다. 그들은 매체에 맞춰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변형시켰다.

셀카를 찍거나 이미지 큐레이팅과 같은 개인적인 선택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까지도 바꾼다. 우리는 휴대폰 습관이 개인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주변의 진짜 세계보다 휴대폰 화면을 우선 시할 때, 그 결과는 물결처럼

우리는 셀카 찍는 여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2차 충돌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스के이트 타는 방향을 바꿔야만 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는 스के이트 링크 전체 공간의 분위기가 그들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유명한 공공장소에 있는 느낌이 사라지고 내가 마치 누군가의 사적인 공간, 사적인 무언가를 침범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만 했다.

(15면으로 계속)



### 교회 공간에 놓인 긴장 공간과 공동체의 긴장을 이해하자

교회 개혁을 결정하고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공간과 공동체의 긴장이었습니다.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 형성과 신앙 실천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 공간과 공동체는 때로 대립적인 요소처럼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간을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로 강조하고, 어떤 이들은 공동체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간과 공동체는 서로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긴장 속에서 공존하는 요소들입니다.

강요된 선택이었습니다. 재정이 충분했다면 다른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ἐκκλησία,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정이기도 했습니다(고전 3:16, 엡 2:19-22). 3개월 정도가 지나자 집에 모이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태권도 도장을 토요일과 주일에만 빌려서 모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요 4:24) 하시며, 특정한 공간이 아닌 신앙의 본질을 강조하셨습니까요. 주중 모임은 집에서 진행했습니다. 초대교회도 성전이 아니라 가정에 모이며(행 2:46) 공동체 중심의 신앙을 실천했습니까요. 이 모든 걸음을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3면으로 계속)

첫 예배 공간: 강요된 선택, 그러나 공동체를 믿음으로

우리 교회의 첫 예배 공간은 나주혁신도시 OO아파트 704호였습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것처럼



시론 백승철 목사



2면 푸른초장 박병섭 목사



4면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8면

**할렐루야백화점**  
다이어리 | 시편 교회배너 | 헌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뉴욕 뉴저지 지역 목회자 세미나  
**변화하는 시대, 이민목회와 사역**

주제강의: 목회와 설교, 목회와 영성, 목회와 가정, 목회와 소그룹

강사: 김영길 목사 (LA 감사한인교회 원로목사), 임성진 목사 (WMU 총장), 남종성 교수 (아시아 아메리칸 영성센터 디렉터), 최윤정 교수 (PCCE 디렉터), 신선목 교수 (소그룹 사역센터 디렉터)

일시: 2025년 3월 10일(월) 9:30AM-3:30PM  
장소: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 시무)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주관: World Mission University | 전화: (213) 388-1000 | 이메일: ministry@wmu.edu

시론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화석



백승철 목사

(사모하는교회, 시인, 문학평론가)

아직도 그날 장면이 또렷하다. 한국 시간 10시 27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TV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었다. 필자의 시선이 굴절되지 않고 TV 안으로 들어가 휘젓고 있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의가 엿보였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3일(화)은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화석이 될 것이다. 포고령전문 서문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와 중첩된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과 서문의 단어 나열이 섬뜩하다. “북한, 공산세력, 약탈, 종북, 척결, 암약, 반국가세력, 체제전복, 위협, 언어가 살아나 날 선 살인 무기로 가슴을 향하고 있었다. 설명이 없다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국회로 들어가는 군인들을 막아서는 시민과 국회 요원의 총동이 TV 화면을 가득 메웠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아무리 공리를 해도 전쟁 같은 비상사태는 아닌 것 같다. 반국가 세력의 정체는 누구이며,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한 규명도 없다. 헌법 학자가 아니더라도 헌법의 문맥과 현상을 비교, 대조, 대입해도 딱히 떨어지는 계엄의 사유가 눈에 띄지 않는다. 대통령도 이와 유사한 발언을 했다. 이번 계엄은 계몽령, 선거부정, 더불어민주당의 독주(탄핵, 특검, 예산안 단독 처리, 야당 대표의 방탄)를 차단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논리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계엄사유가 헌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계엄으로 끌어온 것이 좌초수가 되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탄핵심판으로 국론이 반쪽으로 나뉘고 우파(보수) 역시 쪼개지고 투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뿐 만이 아니다. 교회 안에도 좌파(진보), 우파(보수)로 선을 긋고 목회자가 강단에서 시국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면 반대 영역에서 인터넷 SNS 광장을 이용해 벼랑 끝으로 밀고 있다. 최근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자”는 설교로 교회 홈페이지에 해명 글까지 올렸다. 필자가 속해 있는 목회자 단독방에도 개인의 정치견해를 대중화하려는 것을 경계하는 눈초리가 매섭다. 탄핵과 맞물려 검증되지 않은 중국개입, 카톡 검열, 여론조사 통제 등 뉴스가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다.

단언하건데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가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 게다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천만 신앙인이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진보(좌파)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입증되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허태균 교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모든 사람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 환상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했다.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 나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내 뜻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전제로 시작해서 설득하려고 한다. 설득에 실패하면 갈등이 표면화되고 팽하하거나 격리시켜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 양극화 현상,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아픔이다. 앞으로 더이상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감옥에 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더욱 다양한 다양성의 다름을 품어야 할 것이다. 결국, 그 나라를 세우고(고전 3:6)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라 아멘”(롬 11:36).

www.epipodo.com

선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신 이유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선하심을 상기시킨다

무신론자였을 때 내 취미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건 정말로 재미있었다.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한 전략 중 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이었다.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함을 의심하게만 만들 수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의심할 것이라는 게 당시 내 생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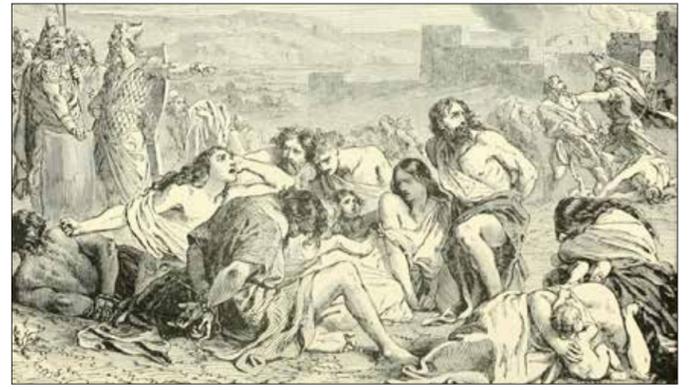
하나님과 선함 사이에 썩기를 박으려고 내가 들고 나온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명령이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거기 사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명령 말이다. 이스라엘은 “숨 쉬는 모든 것을 살려두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모든 남자와 여자, 나아가서 아이와 동물까지 죽이라는 지시였다(신 20:16-17).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심지어 여자, 아이,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몰살시키게 했을까? 당신이 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님의 인내

첫째, 하나님은 인내하셨다. 그의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라는 변덕스러운 명령이 아니었다. 사실,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무려 400년에 달하는 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창 15:13-16).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권능에 대해서 듣고 있었다(수 2:10-11; 9:9). 이 모든 사실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은 회개했어야 했지만, 그들은 방탕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회개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

둘째, 가나안 민족의 멸망은 그들의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가나안 민족은 결코 고작해야 사이며 괴롭힘 같은 사소한 범죄나 저지르는, 순진하고 겸손한 토착민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회는 끔찍했다. 너무나 끔찍해서 만약에 오늘날까지 그들이 존재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개입하



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정도였다.

레위기 18장은 그들의 사회를 간통,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문화로 묘사한다. 그들은 몰락을 숭배했다. 우상에게 자녀를 산 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다. 가나안 민족의 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그들이 사는 땅조차 더럽혀질 정도였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레 18:24-25).

지금 하나님은 수세기에 걸쳐서 쉬지 않고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죄를 파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수단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홍수라는 자연의 기적을 사용했다. 여기서 그가 선택한 심판의 도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이어지는 세 번째 원칙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보호

셋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셨다.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며 “이런 일을 하지 말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로 활용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떤 일을 당할지에 대한 경고였던 것이다(26-28절).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을 “진멸시키라” 하신 명령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신 20:18).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본받아서 부도덕과 우상 숭배에 빠졌다(수 16:10; 사 1:29, 2:1-3; 왕하 16:2-4).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민족에 대한 심판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그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하나님의 선하심

마지막으로, 가나안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선하심을 상기시킨다. 거룩하고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가나안 민족들처럼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대신에 자비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가나안 민족들을 오래 참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내하신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구원을 받아들이길 바라신다. 심지어 심판을 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by Jonathan Noyes, TGC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광고 문의
(323)665-0009 | (718)886-4400
info@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담임 목사 청빙
일리노이주 시카고 서브버 지역 위치한 뉴라이프교회는 복음주의 독립 교회로서 1대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1.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후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분
2.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하신 분
3.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하신 분
4. 미전도 종족 선교 비전이 있으신 분
서류제출 마감 3월 29일 2025
주의 및 안내 사항
1. 모든 서류는 오직 청빙에 관해서만 사용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심사후에 개별 통지하여 전화 면접함
3. 모든 서류는 PDF 첨부 파일로 E-mail: baegnewlife@gmail.com
뉴라이프교회 청빙 위원회
Chicago New Life Church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구독 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캐나다 \$130, 한국/동남아시아 \$240, 유럽 \$240, 남아프리카 \$240
신청유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후원자 이름)
한글: 목 사 □
영어: 평신도 □
배달주소
전화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
배달주소
교회/기관명
E-mail 구독신청: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323)665-0009, (213)674-7982
Tel (718)886-4400
E-mail lachpress@gmail.com
E-mail nychpress@gmail.com

### 교회 공간에 놓인 긴장

(1면에서 계속)  
공간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다 해도, 공간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서 모일 때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가치를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설교자를 볼 때 예배당 안에 있는 분위기를 담아내려고 노력했고, 옆을 볼 때는 집 안에 있는 아늑함을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간은 '공동체 중심'이라는 본질을 담아내는 장점이 있었고, 그것을 최대한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첫 모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비좁은 집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마치 갇혀 있던 새가 풀려나듯 자유롭게 뛰어다녔습니다. 급하게 바닥에 깔 쿠브장판을 구입하고 책상과 의자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도장 입구부터 내부를 가릴 플래카드를 제작했습니다. 지난주 등 록한 성도들이 토요일 저녁에 함께 공간을 세팅하고, 주일 예배 후에도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광야에서 장막을 세웠다 철거하던 이스라엘 백성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공간을 꾸미는 것을 통해 빠르게 소속감을 느끼면서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 공간으로 치우친 역사

교회는 '장소'가 아닌 '사람들'이지만, 사람들이 형성되는 데에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관계를 위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공간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본질을 담아내는 공간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좌로나 우로나 기우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공간으로 치우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신앙의 본질이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간이 주는 성스러움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렘 7:7). 공간 중심의 신앙은 특정한 장소와 형식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의 개방성을 제한하고, 복음의 확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요 4:20-24, 행 7:48-50). 신앙이 특정 공간에 종속되면, 신자는 그 공간 밖에서 불구가 되어 버립니다. 공간이 선교의 수단이나 목적이 될 때, 선교의 역동성은 약해집니다.

#### 공동체로 치우치는 경향

공간으로 치우친 경험은 공간을 무시하는 공동체로 치우치는 경향을 만듭니다. '예배당 교회'에 대한 반감은 '예배당 없는 교회'를 추구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렘 7:4-7). 예수님은 웅장한 성전 건물을 보며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 24:1-2).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에 공간과 관련된 파괴적인 시도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직면

한 영적인 계절에 따라 우리는 기계적 중립이 아닌 급진적인 시도를 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이지 건물은 아니다" 하면서 공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 오히려 신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예배 공간이 신자들의 몸과 감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체험하고 내면화하는 장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고 말하면서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경험한 공간과 공동체의 긴장

태권도장에서 모임을 가집에도 불구하고 방문자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독특한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공동체에 매력을 느끼며 함께하는 지체들도 있었고, 한 번 방문하고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공간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켰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에 대한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과정 중에도 "만약에 더 좋은 환경이었다면 저 분이 함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환경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매주 세팅을 하고 거두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한편 소속감을 만들어 냈으나,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해 서 장마와 태풍의 시즌이 다가오면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옥상에 설치해 둔 텐트가 격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한 교우들의 반응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온도차는 공간에 치우친 교회에 대한 반동의 정도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모바일 텐트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도 전통적인 교회처럼 고정된 건물 안으로 들어가네요." 공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동체 하나만 보고 교회에 등록한 이들의 성향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후 교회가 성장함으로 상가 한 층 전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층을 임대해 공간을 두고 절반씩 나누어 공사를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 공간과 공동체를 긴장 속에서 이해하기

공간과 공동체를 긴장으로 보지 않을 때에 오해와 갈등이 발생합니다.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공간에 대한 이슈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누군가에게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간에 대해서 말하면 비본질적인 건인가?" 긴장을 놓치면 공간과 관련된 건강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한 쪽은 공동체를 위해 공간을 수단으로 대했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공간이 목적이 되어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신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생각은 공동체보다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좀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회중의 경제적 행편을 살피지 않는 '사랑 없는 마음'

으로 비쳐지기도 합니다.

긴장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공간과 공동체 사이에 놓인 긴장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간은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간보다 신앙의 본질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공간에 갇히지 않는 복음의 역동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간에 대한 무시는 결국 신앙의 본질을 지킨다기보다, 결국 비효율적인 실용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 교회 운영에서 단기적인 실용성을 추구하게 되고, 신앙 공동체의 장기적인 정체성이 약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축이나 공간 활용을 단순히 '비용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공동체의 장기적인 방향성과 철학이 부재한 상태로 교회 운영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 긴장 속에서 걸어가는 교회

30대 후반에 교회를 개척해서 젊은 회중들이 주축인 교회를 이뤘습니다. 회중이 가진 교회 공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품고, 공간과 공동체의 긴장을 붙잡고 온 것입니다. 공간과 공동체의 긴장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패와 시간이 쌓여야만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와 회중 모두 온전한 균형을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공간을 꾸밀 수 없었습니다. 다양한 견해와 경제적 현실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간 때문에 자칫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제 뜻대로 되지 않은 것조차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고백은 회중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균형을 잡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그렇기에 서로가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공간과 공동체의 긴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공간에 대한 집착과 무시를 피하며, 열린 대화를 통해 건강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과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교회 안팎에 퍼져 있는 문화적 편향이 확증 편향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나와 회중은 좌충우돌하며 공간이 본질은 아니지만, 공동체가 형성되는 중요한 도구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나, 육체를 가진 공동체 이기에 현실적인 필요 곧 편안함, 개방성,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간은 공동체의 형태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공동체라는 본질을 붙잡고 주어진 공간을 감사하며 누리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공간도 과감하게 열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완벽한 균형을 맞추려 하지 말고,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주목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by 박용주, TGC

### 목회단상

## 그럴 수도 있지



곽덕근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와 친교를 다 마치고, 오후에 구역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역마다 각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나는 곧 있을 부흥성회 포스터를 몇 군데 한인 마켓과 식당에 붙이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 연세가 좀 있으신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구역예배를 다 마쳤는데, 우리 집으로 오셔서 저녁 식사 함께 하세요."

"권사님, 지금 제가 부흥성회 포스터를 붙이러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구역식구끼리 식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전화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 날 그 구역에 속한 다른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어서 확인 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어제 혹시 오후에 골프 치고 있어서 저녁 식사에 못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구역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 전화 드린 분이 통화를 끊으면서 목사님은 지금 골프 치고 있어서 못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았지만, 속에서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 올라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포스터를 붙인다는 말을 골프를 친다는 말로 들을 수가 있지.' 도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 일이 일어난 그 당시는 내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365일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며, 밤늦게까지 심방하며 모든 행정까지도 혼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지금까지 주일에는 골프는 물론 볼링이나 테니스 같은 운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요즘 내 아내와 가끔 투닥투닥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는 말했다고 하는데, 나는 못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아내는 저렇게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둘 다 청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지금은 '그 때 권사님도 그렇게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상식 밖의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40대에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60대가 되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내 나이 80대가 되면 이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80대에 이해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구나."

예배소서 4장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주장과 다른 의견들로 인해 다툼이 생기고, 서로 다른 관점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우선순위와 일을 해 나가는 방식이 다름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날 때, 한 번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서로 용납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용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서로에 대하여 마음을 넓혀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중에 개척한 후에 무려 일 년 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교회입니다(행 18: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교회는 여러 분파로 나뉘어 분쟁하였고 세속화 되었을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무리들로 인해 바울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준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일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후 6:11-13)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쓴 편지를 보내주었고 마침내 서로가 마음을 열고 받아주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권면대로 서로를 향해 입을 열어 축복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넓게 열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게 된다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revkwak@gmail.com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39<sup>th</sup> Anniversary

Midwest University(제임스 송, 총장/설립자)는 1986년 미국 중부 St. Louis에 설립된 미국 연방정부교육부 (USDE), 대학학력인준 기관인 CHEA와 ABHE의 인준을 받은 미국정규 종합대학교입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림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 선한 정부, 악한 정부

인간은 실낙원 이후 고통을 그리워하듯 늘 에덴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그리워하는 본질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서 --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가장 이상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언덕 위의 도시(A city on the hill)를 세우고자 하였으나 그런 도시는 실현되지 못했다.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다. 이런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 뽀뽀 뽀뽀 부족한 데 정치권에서는 날만 싸움이다.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무한 경쟁 시대에 국민을 잘 살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데 말이

다. 이런 비생산적인 정치 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을 고쳐서 스위스처럼 6개월이나 1년씩 번갈아 가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제도로 바꾸었으면 싶다. 화가 로렌제티가 태어나고 2년이 되던, 1292년에 시에나는 평의원 9명으로 구성된 공화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476년에 서로마제국이 망한 이후 이탈리아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변했다. 밀라노나 나폴리, 그리고 시칠리아는 프랑스와 신성로마제국들이 번갈아 가며 통치했다. 그러나 그 외의 작은 도시들은 도시국가로 명맥을 유지했는데, 시에나도 그중 하나였다. 특히 시에나는 공화정

제도를 수용하였고, 평의원 9명을 선출하여 통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에나는 공화국의 유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컸다. 그래서 시에나의 의원들은 1284년에 완공한 시청사에 재능 있는 화가로 하여금 정부의 정치철학이 담긴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 그래서 평의원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종 들어야 한다는 의식을 성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시청의 평화의 방(Sala della Pace) 넓은 벽에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에 대한 연작 그림을 그려, 국가를 위해 모일 때마다 벽면에 그려진 그림을 통해 각성하고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분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때로는 심각하게 대립할 때도, 숨을 들이마시고, 벽면을 가득 채운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에 대한 그림을 보며 스스로 성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한순간에 도시국가의 명줄을 틀어쥔 자신들보다 강력한 피렌체 공화국이 60Km의 거리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을 위해서 뽑힌 화가가 암브로조 로렌제티(Ambrogio

Lorenzetti 1290-1348)이었다. 그는 형과 함께 활동하는 시에나의 대표적 화가다. 그런데 그에 대한 사료가 르네상스 시대 활동했던 다른 피렌체 화가들보다 열악하다. 그 이유는 시에나는 피렌체와 자웅을 겨루는 정치적, 경제적 맞수였기 때문인지 모른다. 시에나와 피렌체는 인접한 도시국가였기에 겹치는 길드(조합)들이 많았다. 시에나 역시 양모와 금융으로 부유하게 된 도시였으니, 이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경쟁과 불신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시에나가 피렌체보다 역사가 깊다. 피렌체는 줄리오 시자가 퇴역 군인들을 이주시킴으로 시작된 도시지만, 시에나는 전설에 의하면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의 동생 레무스가 죽임을 당하자 그 아들들이 도망쳐와서 세운 도시로 믿었기에 남다른 자부심이 대단했다. 화가 로렌제티는 알레고리(비유)로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에 대한 연작 그림을 그렸다. 그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미술에 큰 관심을 가졌던 화가이었다. 그리고 비잔틴 양식에 기초한 화풍으로 당시의 거장 두오초에게 사사했고, 르네상스 미술사에 큰 영향

을 끼친 조도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려냈고, 조도가 착안한 원근법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그의 작품들은 피렌체의 우피치 박물관과 몇 곳에 남아있다. 시청 청사 벽면을 아우르는 오른쪽에 좋은 정부, 왼쪽에 나쁜 정부에 대한 그림은 성경에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오른쪽과 왼쪽을 연상케 하는 그림이다. 오른쪽은 높은 왕을 중심으로 평화, 힘, 신중함을 묘사했고, 왼쪽은 머리에 뿔이 달린 악마를 중심으로 관용, 중용, 정의에 대해서 그렸다. 오른쪽에는 뮤즈들 9명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고(당시 시에나는 낮에 여자들이 거리에서 춤추는 것을 금했는데, 그런 그림을 그린 것은 자유로운 삶을 허락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고, 또한 그 뒤로는 지붕에서 인부들이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농부들이 밭에서 일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그 모두가 평화로운 모습이다. 좋은 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기 일에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호소가 담긴 그림이다. 그러나 나쁜 정부는 그



그림 1 악한 정부



그림 2 선한 정부

반대로 통치하는 정부다. 정치가들이 숙고해야 할 그림으로, 독특한 발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그림이다. 그러나 시에나는 피렌체와 경쟁 관계를 유지하다가 1555년, 피렌체의 공격으로 포위를 당해야 했다. 무려 18개월 동안, 끈질기게 저항하다가 결국 성문을 열어줌으로 500년을 이어오던 시에나 공화국은 종언을 고하고 말았다. 평의원들의 부패와 나태 때문은 아니었을까? chiesadiroma@daum.net

# 푸/른/초/장

**박병섭 목사**  
(뉴욕선교교회)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 동안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위선적인 태도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 겉으로는 아주 의롭고 선한 척하면서도,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늘 지적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관습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와 당시에 당연하게 여겼던 금식도 하지 않고 나병에 걸린 사람,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지면 불결하고 부정함 사람이 뒹을 알면서도 그 상처를 손수 만지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세리들과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복음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알리기 위함이고, 둘째는 당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도리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적용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이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종교지도자들로,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명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를 방문한 그들의 눈에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은 채 부정함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바람과 먼지가 많기에 고대로부터 식욕을 자극하기 위해 모든 것을 회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가정용 포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

는 것은 위생상으로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라는 것은 율법에 없었습니다. 율법에는 오직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 제사드리기 전에 손을 씻을 것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에스라의 율법운동의 결과로 해이해진 그

르심을 받아, 많은 것을 회생하고 예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지도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함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라고 따지며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함 손으로

건드릴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 자기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입니다. 분명 부모에게는 나쁜 일이지만, 종교지도자들에게는 나중에 현금으로 돌아오니 유익하므로 자녀들이 잘못되었다고 꾸짖지 않으니 너희들이 위선자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는데 너희들이 전한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부정함이라고 할 수 있는나? 진짜 부정함 것은 마음이 더러운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로 보면 혁명적 선언이었습

니. 종교지도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백성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요즘 말로 사이다 발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1-13절에 걸쳐서 정결법에 대한 논쟁을 하신 후, 14-23절에 걸쳐 참된 정결에 관한 비유와 해설을 하신데, 당시 유대교에서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외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부정함 손이나 옷에, 그릇에, 몸에 붙어 있는 무엇이며, 그것이 묻거나 접촉되면 부정함 전염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부정함 세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더러운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시자 제자들은 무리에게 하였던 말씀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8-23절에 걸쳐 말씀 하시는데 이 말씀에는 파격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19절). 당시 이는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과 민명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이 있고, 먹도록 허용하신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짐승 중에는 굽이 갈라지고, 새끼를 하는 것은 먹을 수 있고, 물고기 가운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신앙인은 내면적인 믿음과 영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종교 생활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참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진실한 믿음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나 습관이나 관습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는 믿음입니다. 외적인 의식이나 관습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말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적용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 용서, 겸손, 정의 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관계를 중시하고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종교 단체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격적인 교제가 우선입니다. 날마다 기도와 묵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야 하고... 신앙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위선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겸손하고 이타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보다 은혜를 중시하여 끊임없는 신앙의 성장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종교인이 형식적 율법을 따르는 것에 머문다면,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중심에 두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늘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신앙은 한 번 정해진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더 깊은 믿음을 갖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신앙인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고,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신앙인과 종교인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참된 신앙인으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율법보다 은혜를 중시하여 끊임없는 자기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jackbspark@gmail.com

# 악한 것은 다 속에서

마가복음 7:1-23

다. 종교지도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백성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요즘 말로 사이다 발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1-13절에 걸쳐서 정결법에 대한 논쟁을 하신 후, 14-23절에 걸쳐 참된 정결에 관한 비유와 해설을 하신데, 당시 유대교에서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외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부정함 손이나 옷에, 그릇에, 몸에 붙어 있는 무엇이며, 그것이 묻거나 접촉되면 부정함 전염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부정함 세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더러운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시자 제자들은 무리에게 하였던 말씀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8-23절에 걸쳐 말씀 하시는데 이 말씀에는 파격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19절). 당시 이는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과 민명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이 있고, 먹도록 허용하신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짐승 중에는 굽이 갈라지고, 새끼를 하는 것은 먹을 수 있고, 물고기 가운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것을 21-23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악한 생각으로 인해 나오는 악덕에 대한 목록을 12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사실 부정문제를 제기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과 몸, 그리고 잔과 그릇은 깨끗하게 씻었는지 모르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썩어가는 시신과 뼈만 있는 회 칠한 무덤같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23절 말씀처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23절).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손을 씻고 깨끗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담후 2:20-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짚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담후 2:20-21).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재질이 좋은 그릇이 아니고, 속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주의의 잣대로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미정부가 인정하는 성별은 오직 2개” 라고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엄청난 영향력은 어디까지 펼쳐지는가? - 상 -

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전환 의료 관련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도입

1월 28일자 백악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통령 행정명령중 하나에는 19세 미만의 성 정체성 확인 치료(GENDER AFFIRMING)를 위한 연방 자금 지원과 모든 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와 관련된 모든 정부 지원, 납세자 세금으로 지원되던 트랜스 건강보험 적용 및 홍보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성년자들의 신체와 정신에까지 되돌릴 수 없이 해로운 “화학적” 치료와 약물, 신체 부분 절단(가슴 및 아래 부분) 및 호르몬 치료 등을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미 정부는 앞으로 아이들이 한 성별에서 다른 성별로 시술을 통해 전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뿐더러, (바이든 행정부가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지지한) 트랜스젠더 운동가들에게 가던 엄청난 재정적 후원 및 홍보 등 모든 지원을 중단 할 것이다.

파괴적이고 한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는 트랜스젠더 의료 절차들을 금지하는 모든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여, 나는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전환 행정명령에서 금지된 치료 방법에 무엇이 포함되었나?

“PUBERTY BLOCKER 사춘기 차단제”로 불리는 약물 금지! 사춘기 차단제란, 사춘기 과정을 통과하는 미성년자들의 매우 중요한 신체의 정상적인 성장 과정들을 지연시키는 약물인데, DEEP BLUE STATES 안에 있는 공립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별을 바꾸기위한 학생들에게 거의 공짜로(정부 재정 지원) 주어지던 매우 위험한 화학 약물임. 성전환 호르몬 치료금지: 신체적 특징을 원하는 성별로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사용 금지. 예)여성턱에 수업을 나게하거나, 근육을 키우게 하는 호르몬제.

신체 부위 바꾸는 모든 끔찍한 시술 금지: 생물학적 신체와 다른 성별의 신체 외형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는 모든 수술들. 예) 성기나 가슴 제거 또는 신체 부위 변형을 포함한 모든 성전환 수술, 시술들을 금지.



2. 트럼프 대통령은 “젠더 확정 치료 (GENDER-AFFIRMING CARE)” 라는 의료행위는 실질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신체를 약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런 시술은 “아동학대-CHILD ABUSE!”라고 함.

트럼프 행정부의 “성별은 오직 2개” 행정명령은 또한, 미연방 정부 기관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연방 연구 및 교육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중단 조치.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를 장려하는 세계 트랜스젠더 건강 전문가 협회(WPATH)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정책을 더이상 따르지 않을 것이며 완전히 폐기.

보건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 HHS)에 미성년자의 ‘성별 불편감(GENDER DYSPHORIA)’ 치료와 관련된 최신 연구 검토 및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 요청.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를 내부 고발하는 직원 / 교사 / 직원들 보호 정책 강화.

3. 미군 의료보험 및 연방 공무원 건강 보험에서도 성전환 치료 재정지원 금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군인 의료보험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납세자의 세금으로 쓰이던 성전환 의료 비용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운영하는 군인 및 그 가족 대상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TRICARE에서도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TRICARE 제공자 핸드북에서 트랜스젠더 관련 치료 항목을 삭제하고, 연방 공무원 건강보험(FEHB) 및 우편 서비스 직원 건강보험에서도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치료 비용을 지원하지 않도록 수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참고로, 밀리터리닷컴에 제공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5년간 1,892명의 트랜스젠더를 치료하는 데 \$15 MILLION달러를 지출했으며, 여기에

는 심리치료에 \$11.5 MILLION 달러, 수술에 \$3.1 MILLION 달러가 포함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군대에 들어가 자신들이 원하는 성전환(트랜스젠더)시술을 하고 나온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것도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은 금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첫 행정부 시절인 2017년에 트랜스젠더 미국인의 군 복무를 금지했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에 이를 폐지하는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선서한지 몇 시간 후,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2021년 트랜스젠더 복무 허용 조치를 철회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군 규칙에 대한 명령은 성별 대명사에 관한 새로운 군사 기준도 세웠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혼돈이 있는 정신적, 육체적 준비가 안 된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를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백악관의 관리가 더하여 알려주었습니다. 한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미군의 군사/군대 기준이 다시 정상화 됨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 중요 기도 제목:

트럼프 대통령이 창조질서로 돌아가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펼치고 있기에, 그동안 미연방정부의 재정을 받다가 끊어지게 된 동성애/성전환 운동가 단체들로부터 공격이 매우 큼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솔로몬의 지혜가 그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을 보초하는 신앙보좌 목회자들이 타협하지 않는 자문(ADVICE)을 줄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창조질서로 돌아가갈 수 있는 미 정부가 다시 세워지게 되어 기쁘지만, 짧은 4년 동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창조질서를 비롯한 확실한 “성경적 세계관”이 뿌리내리는 일이 시급하기에, 저희 단체 TVNEXT는 계속 다음세대 리더십 양육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자녀들을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TVNEXT.ORG@G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

다음 호에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을 마치고 졸업여행으로 터키의 소아시아 7교회와 로마를 2주간 다녀왔습니다. 저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에베소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사역하다가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알고 싶습니다.

- 로마타에서 권명옥 권사

#### 부흥은 어떻게 오나

A: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16년 전에 에베소에서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추정되는 셀수스 도서관을 가이드로부터 안내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두란노 서원은 헬라철학 강당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더위 낮잠자는 시간에 강의가 없으므로 그 시간을 빌려서 그곳에서 하루 5시간씩 매일 전도강연과 질문하고 대답하는 식의 제자훈련식 강좌를 2년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의 전도강연은 그곳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유명한 강좌가 되게 되었습니다.

1)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남달리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구원의 그 메시아임을 성경으로 확증하고 성경의 바른 진리를 가르쳐 말씀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와서 바울의 전도강연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행 19:10)

2) 병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희안한 능을 주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마치고는 온 사람들 중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어 기도하면 각종 병자가 고침 받았습니 다. 에베소는 악령들이 역사하는 미신의 고장이므로 귀신 들린 자가 많았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천막 고칠 때 사용하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빌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준 특별한 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의 표입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신유의 은사는 복음 전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행 19:18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라고 말합니다. 공개적인 자백과 회개운동은 참된 부흥이 일어날 때 역사적으로 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박용규 목사가 쓴 ‘평양대부흥운동’이란 책을 보면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동요하고 쓰러지고 눈물과 통회와 회개가 전 청중가운데 임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낱알이 고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런 운동은 1740년, 전후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 19세기 전반 제2차 대각성운동, 1903년 원산부흥운동,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에서도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원산부흥운동을 보면 “하디 선교사가 자기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여기저기서 회개의 탄성이 전체 청중을 압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적질 한 것을, 선교사들을 미워한 것을,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형제와 아내와 다른 사람을 미워한 것을 낱알이 고백했습니다. 1740년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신의 교회에서 말씀을 강해하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죄를 뉘우칠 것을 촉구하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1903년 원산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도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신의 죄와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평양대부흥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평양 시내는 주일 가계문을 다 받았습니 다. 미국에서 제2차 부흥운동이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미 전역에 일어날 때에 사회 개혁운동도 일어났는데 노예제도 폐지운동, 금주 운동이 전역으로 확산되어 나갔습니 다. 그래서 개인의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범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진정한 부흥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물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축복(祝福) 유감

축복(祝福)이 빌 축(祝)에 복(福)이 합쳐진 단어다. 다시 말해 복을 빈다는 의미가 된다.

오늘 차를 운전하면서 기독교 방송을 들었다. 목사님이 방송에 출연하여 상담인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프로를 듣는데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이 되고 있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이다. 만약

성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기도의 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축복을 살펴보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는 뜻이 된다.

뭐 그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따지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민 14:28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신다.

찬송가 94장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가사가 있다. 이 가사를 두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 우리가 무어라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다.

오해의 소지 또는 불충의 소지가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는 우리를 삼키려는 대적에 대해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인해 결과가 천지차이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느나 안 하느나 이다. 축자를 굳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신(존재)을 인정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단어를 놓고 이전에도 설명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왜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지는 참으로 이해부득이다.

이 사용하는 사람이 목사들이다. 제일 많이 기도하니까 복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백 번 양보를 한다면 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것에 토를 달고 이유를 댈 이유가 전혀 없다. 고치면 된다. 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도 사탄의 시험거리도 없어진다.

부 하나님께 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분명 틀리다.

습관으로 불거진다면 이는 큰 죄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그 신령과 진정이 단 하나로 갈릴 수도 있다는 것을 성도는 주의해야만 한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러 우크라진 관련 회담 종료... 결론은 안산 듯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방안을 놓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났다.



BBC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18일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 간의 장관급 회담이 끝났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마-러 정상회담 일정을 비롯한 양자관계의 전반적 회복 문제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등에 대해 약 4시간 30분 동안 논의했다.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모든 당사자가 지속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종식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각 고위급 팀을 임명하기로 했다"

한편 러시아는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가입을 약속한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회의 선언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美 관세 표적 된 車·반도체... 정부·기업 대책 마련 사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퍼붓고 있는 관세 폭격은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는 4월 2일 자동차 관세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도체 관세 부과도 예고된 상태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아 대미 협회에 나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한국 기업 대표단도 19~20일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트럼프 '반도체 공세'에 전전긍긍 대만, "미국산 구매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대만이 전전긍긍하며 대응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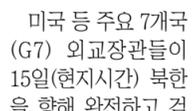
미국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15일(현지시간) 북한을 향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호이익과 시너지가 창출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집결하는 만큼 민주 국가들이 더욱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도 조금 만들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반도체가 대만에서 만들어진다"면서 "대만은 미국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 갔다."

대만은 14일 고위급 국가안전회의(NSC)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라이칭더 총통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후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에 대한 투자와 구매를 확대하고 양국 간 무역 균형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G7 외교장관 "北, 불가역적 비핵화... 우크라진 철수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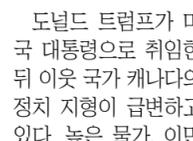
미국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15일(현지시간) 북한을 향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관련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기존 핵 프로그램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

G7 장관들은 이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G7 장관들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 지원이 분쟁의 위험한 확대에 이어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에 군대 철수를 포함한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영향에 캐나다 진보 '부활'... 자유당 급등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이웃 국가 캐나다의 정치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선거 통계 사이트 338 캐나다에 따르면 자유당은 29%의 지지율로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자유당은 지난 달 5일 여론조사에선 20%에 불과했다. 자유당보다 더 강한 진보 성향을 띠는 신민주당에 불과 1%포인트 앞서는 상황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한 달 여만에 상황이 완전히 선거 판세가 뒤집어진 셈이다. 반전의 시작은 우선 지난 달 초 9년 간 집권하며 10%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던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2년 동안 자유당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선거 패배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자유당은 급락세를 뒤집고 있다. 명백한 부활의 핵심 요인은 트럼프"라며 "보수당은 트뤼도를 공격해 상당한 성과를 얻었지만 이제는 당파성을 대체하는 민족주의로 인해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라오디게아를 바라보며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가 있는 지역을 이번에 답사했다. 그 중, 라오디게아가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

에서 말씀하실 만큼 라오디게아는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다. 동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도로가 지나가는 사통팔달의 요지였기에, 온갖 물자가 드나들었으며, 목화를 재배하고 양을 길러서 최고급 옷감을 만들어 엄청난 부를 쌓았다고 한다. 당시 최고위층이라 할 수

있는 로마제국의 원로원 의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옷감이 라오디게아 산이었다고 하니, 명품 제조업으로 라오디게아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는 지진이 잦았다. 모든 건물들을 돌을 쌓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 지진이 나면 도시가 엉망이 되고 복구하는 데에 천문학적 돈이 들었다고 한다.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이 도시의 복구비용을 대 주겠다고 제안을 해 왔다. 빨리 도시를 복구하여 명품 옷감을 생산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런 로마 원로원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한다. 우리는 충분히 부유하니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이 자존심 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유하고 자존심이 강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향하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

는도다" 부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가난하고, 풍요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곤고하고,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눈 멀었다는 뜻이다. 그러니 그런 너의 실상을 알라고 예수께서 경고하신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복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부유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가난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 만으로 사는 것이 더 부유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 더 부유할까? 내가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다. 내가 강건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 기도할 필요도 없어진



다, 그러나, 고난으로 도리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아픔이 도리어 복이 될 수도 있다. 잠언 18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한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부유함으로 교만함보다 가난할지라도 겸손함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wmclakim@gmail.com



오슬랜드연합감리교회 은혜말씀성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민경보 목사

오슬랜드연합감리교회 은혜말씀성회

"불신앙의 프레임을 깨고 믿음의 프레임을 가져야"

오슬랜드연합감리교회(담임 정현섭 목사)는 2025 은혜말씀성회를 '다음세대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14일(금)부터 16일(주일)까지 민경보 목사(안산광림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경배와 찬양과 정현섭 목사 인도로 16일(주일) 오전 10시 시작된 예배는 권현일 장로 기도, 찬양대

특송으로 이어졌다. 이어 민경보 목사가 '프레임을 바꿔 주시는 주님(요 5:1-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민경보 목사는 "본문의 베데스다는 양문 근처에 있는 곳이다. 그곳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지만 정작 병이 중한 자에게는 절망의 집이었다. 38년 동안 그곳에 있던 병자에게는 밝은 미래를 소망하는 프

레이미 아닌 절망적인 프레임이 갖게 되었다. 이는 우리 신앙은 형식화 되고 기도는 가식화되고 믿음 속에서 살아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불신앙을 갖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이다.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힘이 있고 그분의 권세는 능력과 소망이 있다. 하지만 절망적인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드릴 때 외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않아서다. 그래서 삶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게 되며 말씀으로 형성되어야 할 우리 안의 프레임이 세상의 프레임으로 채워지게 된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간 것은 그가 갖게 된 프레임을 깨뜨리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고 명하셨다. 말씀이 부딪혀 왔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다. 우리는 불신앙의 프레임을 깨뜨리고 믿음의 프레임을 갖고 다음세대를 바라볼 때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민경보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감사 나눔의 축복 세미나를 ZOOM을 통해 인도하고 있는 이훈구 장로(상단 중앙)

이훈구 장로 '감사 나눔의 축복 세미나' 가져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도 감사해야"

이훈구 장로(G2G 선교회 대표)가 한국의 감사 나눔 공동체가 주관한 '감사 나눔의 축복 세미나'의 강사로 초청돼 10일 저녁 8시(한국시간) Zoom을 통한 화상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훈구 장로는 "감사 나눔의 기적"(저자 김남용)의 책을 읽고 감사에 대해 눈이 뜨게 되었다"고 말하며 감사 관련 책들을 읽고 그 책속에서 마음에 닿는 내용을 정리하고 경험을 통해 얻은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 설명

과 함께 세미나를 인도해 갔다.

그는 감사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한 뒤 "감사의 종류에는 누군가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감사와 자기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하는 감사가 있다. 감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알 때에 그 감사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이유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 이유와 영적인 이유를 구분해서 상세하게 소개했다. 특히 "감사를 하지 않고 마음에 분노를 느낄 때의 심장 박동이 아주 불규칙하게 뛰는 것과 감사를 할 때에 아주 정상적이고 정규적인 심장 박동으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행복이 찾아올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를 통한 행복한 원리에 대해 '감사는 필수, 감사의 습관화, 감사의 일상화, 감사는 표현, 감사 나눔'의 실천의 순서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며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도 잠시 동안 감사하는 것으로 마감하고, 매일 매일 감사하는 습관화가 될 때에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라고 밝은 칼바라가 지은 <감사의 힘> 책을 인용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의 감사나눔공동체는 '감사 나눔의 기적'의 저자 김남용 대표와 12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며 이 단체 임원으로 활동 중인 이훈구 장로의 저서로는 <크리스천 자녀 교육 결혼을 어떻게 시켰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있다. (정리 이성자 기자)

새책소개



원의숙 전도사

사순절 40일 천로역정 묵상집

지난해 말 '연말 결산, 새해 결심'을 출간한 원의숙 전도사가 사순절을 앞두고 '사순절 40일 천로역정 묵상집'을 펴냈다. "천로역정"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성경이 죄와 심판에 대해 말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진리의 책'임을 믿는다면, 이 시간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 순례의 여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중략 본서 18쪽) 라고 권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서는 1. 무거운 짐을 진 한 남자: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할까 2. 전도자와의 만남: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3. 고집, 변덕과의 만남: 나는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4. 절망의 늪: 지금 당장 행복 하고 싶습니까. 5. 도움과의 만남: 절망의 늪에서 나를 건지소서. 31. 절망의 거인에게 불침함: 언약으로 절망을 깨뜨리십시오.

32. 목자들과의 만남 1: 나는 선한 목자라 33 목자들과의 만남 2: 그분의 능력으로 나아가십시오. 34. 무지와 만남: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마십시오. 35. 작은 믿음 이야기: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십시오. 36. 아침꾼과의 만남: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라. 37. 마법의 땅: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38. 빨라의 땅: 신랑이 신부를 기뻐할 같이. 39 죽음의 강: 내가 주를 다시 바라봅니다. 40. 천성: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등 40일 동안 묵상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준비했다. 역자는 "본서를 통해 사순절 40일간의 「천로역정」을 완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각 여정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도록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원의숙 전도사는 2001년에 시작된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척추 통증과 최근 암 투병과



지 연약한 몸이나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잡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며 저서로는 '내 안에 심겨진 가시나무', '오늘 만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말결산 말씀으로 이끄시는 새해결심'의 다수가 있다. 저자연락은 esther4164j@gmail.com 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CKS 주최 사진공모전 수상자 발표

1위 로지 박, Young C. Lee, 2위 박준호



CKS 주최 사진공모전 영예의 공동 1등 수상작(사진 왼쪽은 로지박 씨 작품, 오른쪽은 Young C Lee 작품)

CKS가 '나의 십자가'(누가복음 14: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를 주제로 개최한 사진공모전의 수상자로 공동 1위 로지 박, Young C Lee, 2위 박준호, 3위 신재표 임을 발표했다.

금번 사진공모전은 지난 2024년 5월 21일부터 2025년 1월 30일까지 출품작을 모집했다. 이번 공모전 1위를 차지한 로지 박 씨의 작품은 배낭을 메고 산행을 하고 있는 등산가의 모습을 찍은 것으로 "나의 십자가는 막연하고 두려운 현실에서도 묵묵히 나의 길을 가는 것이

다. 구름과 안개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아도 큰 산(하나님)은 여전히 그 곳에 있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작품 설명을 했다. 공동 1위를 차지한 Young C Lee 씨의 작품은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찍은 것으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8년째 매주 토요일의 전도인의 삶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일"이라는 작품을 설명했다. 2위를 차지한 본지 박준호 기자의 작품은 캘리포니아 벤츄라시 세라크로스 공원에 있는 십자가를 렌즈에 담은 것이

다. 박 기자는 "이 십자가는 벤츄라시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의 영향으로 조금 타버렸지만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산불 같은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능히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3등을 차지한 신재표 씨의 '예수 바라기'라는 작품은 십자가와 해바라기와 12개의 대못을 조화롭게 그린 그림을 찍은 것이다. 신 씨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형상화 했다"는 작품 설명을 했다.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품은 <https://cksingles.org/photo-contest-winners-announcement/>에서 볼 수 있다.

(이성자 기자)



# 동부교계 기사판

## 퀸즈장로교회, 교회설립 51주년 기념예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2월 23일(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교회설립 51주년 기념예배를 드린다.  
▲ 문의: 718-886-4040

## 월드미션대학교, 뉴욕 뉴저지 지역 목회자 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WMU)은 3월 10일(월)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 시무)에서 '변화하는 시대, 이민목회와 사역'이라는 주제로 뉴욕 뉴저지 지역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강사는 김영길 목사(LA 감사한인교회 원로목사), 임성진 목사(WMU 총장), 남종성 교수(아시아인 아메리칸 영성센터 디렉터), 최윤정 교수(PCCE 디렉터), 신선목 교수(소그룹 사역센터 디렉터)이다. 참가신청은 QR로 하면 된다.  
▲ 문의: 213-388-1000



## 애틀랜타 목사회, 목회자세미나

애틀랜타 목사회(회장 이재선 목사)는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새날장로교회(시무 류근준 목사)에서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주제로 디모데목회훈련원장 이용걸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의 404-915-4717

## 디딤돌아카데미, 2025학년도 봄학기 교육사, 심방사 과정

디딤돌아카데미(원장 양춘길 목사)는 2025학년도 봄학기 교육사 및 심방사 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과정은 3월 11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뉴저지필그림교회에서 진행된다. 강의는 이수일 박사(발달심리학), 유재도 목사(사명으로서의 교육), 박길재 목사(변증학), 양춘길 목사(설교학)가 맡아 진행하며, 등록비는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 문의: 서병용 사무처장 201-739-7733

##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여성리더십컨퍼런스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전찬선 목사)는 2월 23일(주일)부터 25일(화)까지 워싱턴하늘비전교회(장재웅 목사 시무)에서 이상목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여성리더십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등록비는 30불이다. (호텔숙박 및 식사제공)  
▲ 문의: 443-864-4395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미주동부동문회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하고 있다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미주동부동문회

###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며 섬김과 하나됨의 모습 실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미주동부동문회는 2월 12일(수) 뉴저지 잉글우드에 위치한 개신교수도원(원장 김에스터 목사)에서 2025년 신년예배 및 하례회를 열었다.

동문회장 박성원 목사(더나눔하우스 대표)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총무 최병관 목사의 기도, 장재웅 목사(워싱턴 하늘비전교회)의 설교('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레 19:32-37, 시 71:28')로 진행됐다.

장 목사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 연세는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며 섬김과 하나됨의 모습을 실천하기를 축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영호 목사(미동부크리스찬아카데미 대표)의 인사와 함께 동문회의 발전을 기원했으며 김창길 목사(뉴저지장로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신년예배는 마쳤다.



왼쪽부터 소리엘 장혁재 목사, 신성근 목사, 굿네이버스 관계자

이날 박성원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동문회 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진이 인준됐다. 부회장에 장재웅 목사, 총무에 최병관 목사, 서기에 문정웅 목사가 선임되어 앞으로 1년 동안 동문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모인 순서는 노순구 목사(뉴저지 리버럴교회)의 폐회 기도도 마무리됐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은 대학원 과정으로 1964년 설립됐으며 이영훈, 김성광, 박종화, 신복운 목사 등 한국교회를 이끌어온 인물들을 배출했다. 미동부 지역에는 200여 명의 동문이 거주하고 있다.

(기사제공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미주동부동문회)



뉴저지한인은퇴목사회, 정기예배 후 사진 촬영했다

## 뉴저지한인은퇴목사회, 정기예배 드려 "끝까지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자"

뉴저지한인은퇴목사회(회장 장식진 목사)는 지난 13일(목) 오전 11시 뉴저지순복음교회(시무 이정환 목사)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장식진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신성능 목사 기도, 은목찬양대 찬양에 이어 조영길 목사가 '목사와 교사로서 (엡 4:11-12)'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조영길 목사는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직책으로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며 지켜야 한다. 또한, 신구약 성경 66권을 균형 있게 가르치고, 경계하며 훈계해야 하며, 지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또한 "지금까지 목사와 교사로 살아오면

서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 왔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사와 교사로서 살아가야 한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 후, 생일을 맞이한 신성능 목사와 주진경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결혼기념일을 맞은 정장수 목사와 정순금 사모, 장식진 목사와 김송사 사모, 이기석 목사와 이동희 사모에게도 축하를 전했다.

뉴저지한인은퇴목사회에 참여하거나 후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회장 장식진 목사 917-597-2488 또는 부회장 겸 총무 조영길 목사 201-364-8075로 문의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영상취재)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갈보리교회는 여러 세대가 모여 케익 커팅으로 축하하고 있다

## 갈보리교회, 창립 50주년 감사예배 드려

### '하나님 은혜로 걸어온 50년, 한소망으로 하나된 교회'

갈보리교회(담임 문정웅 목사)는 지난 16일(주일) 오전 11시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주일 연합예배를 드리며 그동안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별순서로 영·유아·유치부의 순수한 율동과 유·초등부 및 YOUTH의 찬양과 율동이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고, 주사랑 남성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또한 교회의 50년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창립기념 영상이 상영되며 감동을 더했다. 이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각 부서 대표들이 함께 나와 케이크를 나누고 축하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배는 김도수 장로의 기도와 조민규 학생의 성경봉독, 갈보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속에 깊은 은혜로 이어졌다. 담임 목사인 문정웅 목사는 '한소망으로 하나 된 교회 (엡 4:3-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우리 교회가 성

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며, 복음 전도의 소망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성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전했다.

이후 축사를 맡은 도상원 감리사는 '진심미'라는 세 가지 중요한 가치로 "진: 교회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세상의 진리가 아닌 참된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를 실천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한다. 미: 교회의 아름다움은 진리와 선함에서 드러나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에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료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축사했다. 이 모든 예배의 순서는 문정웅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영상취재)

## 뉴욕베델교회,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나눔찬양콘서트

### '소리엘 장혁재 목사 찬양축제'

뉴욕베델교회(담임목사 신성근)에서 2월 9일(주일),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소리엘 장혁재 목사 찬양축제'가 성도들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진행됐다. 굿네이버스 나눔찬양축제는 국내외 취약 계층 아동들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이다.

이번 찬양축제의 특별 초청 게스트인 장혁재 목사는 CCM 듀오 '소리엘'의 멤버로서 현재 호서대학교에서 교수로 강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 목사는 이날도 변함없는 열정과 깊은 영성을 담아 찬양을 인도하며,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날 집회에서 장 목사는 "낮은 자의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리", "야곱의 축복" 등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대표곡들을 함께 부르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김재상 기자)



올네이션스 교회 제3대 오건목 담임목사가 답사하고 있다

## 올네이션스 교회 오건목 담임목사 위임예배

### "기도, 예수님의 사랑, 말씀, 겸손, 무릎보다 앞서지 않겠다"

올네이션스교회(담임 오건목 목사)는 지난 16일(주일) 오후 1시30분 제3대 오건목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렸다.

오건목 목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기도, 예수님의 사랑, 말씀, 겸손, 무릎보다 앞서지 않겠다. 그리하여 주님께 가서 가신 길을 따라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며, 겸손하게 말씀을 붙잡아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다. 또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은혜, 그리고 복음을 지역사회와 세계에 증거하여,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귀한 교회를 이루겠다"고 답사했다.

안성식 목사(PCA 한인 수도회 노회장)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기도 박상근 장로, 찬양대의 찬양, 흥원기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흥원기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고전 11:1-2)'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스춧째, 담임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이다. 예수님의 기도와 사랑을 본받아 늘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한다. 스춧째, 교인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목사님과 그 가정을

늘 기억하고 존중해야한다"며 "이러한 믿음과 실재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위임예식은 위임서약을 한 후 차용호 목사(PCA 한인수도회 중경 노회장)의 권면, 송상철 목사(애틀랜타 새한장로교회) 축사, 교인 정원이 장로의 답사, 오건목 목사 답사, 민복희 집사의 축가로 이어졌다. 차용호 목사는 "기도로 하나 되어 참된 말씀을 전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오 목사를 청년 시절부터 약 20년 동안 전도사, 강도사, 그리고 목사로 사역하는 모습을 지켜봐 온 송상철 목사는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맡길 때마다 한 번도 거절할 적 없이 늘 최선을 다해 감당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는다"고 축하하며, "신자로서, 학자로서, 목자로서, 전도자로서, 제자를 양육하는 자로서,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든 순서는 오건목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영상취재)



(왼쪽부터) 주경배 목사, 김규민 감독, 김보빈 집사, 김성준 목사

## 뉴저지 은혜의강 교회, '통일 오라' 상영회 및 간증집회

###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와 복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뉴저지 은혜의강 교회(담임 김성준 목사)는 지난 2월 15일(토) 오후 6시 탈북민을 위한 다큐멘터리 영화 '통일 오라'(감독 김규민) 상영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이어 2월 16일(주일) 오전 8시 45분과 11시에 탈북민 김보빈 집사의 간증 집회를 열었다.

이 날 간증집회에는 통일 프락 공동체를 이끄는 주경배 목사, 김규민 감독, 김보빈 집사, 그리고 북한 억류 경험이 있는 김상덕 교수(토니 김)도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영화 '통일 오라'는 탈북민들의 비극적인 탈북 과정과 북한에 참혹한 실상, 그리고 한국 정착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김보빈 집사는 인신매매와 강제 복송, 교화소에서의 고문을 겪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고난이 소망과 사랑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북한 감옥에서 비밀리에 전도를 하여 7명이 기독교 신앙

을 갖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까지 용서하고 전도하는 놀라운 간증을 전했다.

탈북민 크리스천 공동체 '통일 프락'을 이끄는 주경배 목사는 "탈북민들이 수혜자를 넘어 기여자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 복음화를 적극 이끌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 주민들이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으며, 지금이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뉴저지 은혜의강 교회 김성준 목사는 이번 상영회와 간증 집회를 통해 "탈북민 크리스천들의 고난과 복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깨달았다. 앞으로 북한 전도를 포함한 다양한 선교와 지역 사회 구제 사역에 더욱 기도하며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뉴저지 은혜의강 교회)



제11차 OC기관 및 단체장 초청 연합조찬기도회 참석자들

### 제11차 OC기관 및 단체장 초청 연합조찬기도회

“미국의 평화와 안전위해 예수님 닮은 리더로 쓰임 받게 되길”

제11차 OC기관 및 단체장 초청 연합조찬기도회가 15일(토) 오전 7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친교실에서 열렸다. 은혜한인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창남 목사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한기홍 목사 환영사 김정호 목사 사와 지경교수가 애국가와 미국국가, 정재용 장로 대표기도, 한성준 집사 성경봉독, 이정화 국악찬양사역자 특별찬송으로 이어졌다. 이날 심상은 목사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자(마 20:26-2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심상은 목사는 “리더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다. 유일하고 완벽한 리더십의 모델은 우리 주님 이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은 △첫째 섬김의 리더십이다. 예수님은 섬기시러 오셨다.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섬김의 자리로 가라고 강조했다. △둘째 낮아짐의 리더십이다. 그것은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셋째 희생의 리더십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수님을 닮은 리더를 이 시대는 원하고 있다. 예수님을

닮은 리더가 있을 때 평화를 누리게 된다. 위대한 영적리더가 영적 판도를 변화시킨다. 연합이 이루어진다.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 행복이 넘쳐 나게 된다.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세상을 위해 리더로 세워진 것 잊지 말고 이 지역 미국의 평화와 안전위해 예수님 닮은 리더로 쓰임 받게 되길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심상은 목사가 ‘한국과 미국, 세계평화’와 ‘다음세대를 위해’, 최국현 목사가 ‘교포사회와 한인회’, 각 기관 및 단체의 큰 발전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한기홍 목사가 ‘정치인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 이어 선교사자녀 추가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으며 윤성원 목사가 축도했다. 윤우경 권사 사회로 열린 조찬과 기관 및 단체 네트워킹은 무궁화향단 특송, 샘신 목사, 영미연 방하원의원, 최석호 거주상원 의원, 조이스 안 부에나팍 시장이 축사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송정명 목사 폐회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오렌지중앙교회 창립 46주년 기념예배에서 유원선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오렌지중앙교회 창립 46주년 기념예배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성도가 함께 하는 공동체”

오렌지중앙교회(담임 유원선 목사) 창립 46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9일(주일) 예배시간에 거행됐다. 유원선 목사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는 허근 장로가 기도했으며 유원선 목사가 ‘예수님이 꿈꾸셨던 공동체 교회(마 16: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유원선 목사는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 성령이 거하시는 곳 등으로 정의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나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함께 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은 △첫째, 예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 예배실에서만 드리는 예배만이 아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원하셨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 △셋째, 예수님은 섬기고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닌, 예배와 사랑의 역사로 인해 세상과 열방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를 점점 닮아가는 오렌지중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유원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산샘교회에서 사우스베이 목사회 2월 정기예배 드려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신태섭 목사) 2월 정기예배가 2월 12일(수) 오전 8시 산샘교회(윤석형 목사)에서 열렸다. 고창현 목사(토렌스제일장로교회)의 기도 후에 설교에 나선 윤석형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는 LA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매트리스 1000개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 서울대학교 남가주총동창회

산불피해 주민위해 매트리스 및 음식, 의류 지원

LA 카운티를 휩쓴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인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채규환)가 나섰다. 총동창회는 비영리 구호단체인 ‘아시아계 미국인의 주거 및 환경 정의(AAHEJ·대표 박지영)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매트리스 1,000개와 생필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는 12일(목) 오전 11시 용수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산불로 주택이 전소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한인 등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창회는 침대 매트리스 1,000개, 생필품, 의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1,000개의 매트리스는 그랜드라이프 Inc.(대표 오승우)의 지원으로 마련됐다. 채규환 회장은 “남가주에 예상치 못한 산불로 12,000여채 주택이 소실되고 15,000여명의 주민들이 이재민 됐으며 이재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

서울대 동창회는 한인 피해자 많기에 이튼지역 이재민 배급소 마련하여 AAHEJ와 협력해 1000여개의 매트리스 제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설립된 AAHEJ는 LA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노숙자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단체로, 현재 이튼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물품 보급소를 운영하고 있다. AAHEJ의 박지영 대표는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에서 기부한 물품은 패사디나와 알타데나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트리스와 생필품은 오는 2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알타데나의 페어옥스 버거 주차장(2560 Fair Oaks Ave., Altadena)에서 배포된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메디칼 정보 및 거주 확인이 요구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323)476-5126, (818)321-2214로 하면된다.

(박준호 기자)



태평양법률협회 제4차 법과교회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위는 이날 강사로 참여한 브래드 대쿠스 박사, 마이크 페퍼 변호사, 주성철 목사 강의 모습

### 태평양법률협회 제4차 법과교회 컨퍼런스

“교사와 유대관계 좋게 맺고,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태평양법률협회는 제4차 법과 교회 컨퍼런스를 1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평화교회(담임 김은목 목사 2538 W Pico Blvd, LA)에서 ‘MZ 세대 부모와 자녀교육’이라는 주제로 가졌다. 목회자, 청소년 사역자, 청년 사역자, 학부모, 교육부 부장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분회 설립자 브래드 대쿠스 박사가 ‘오늘날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교회와 사역을 자리 잡는 방법’, 마이크 페퍼 변호사가 ‘공립학교에서의 학부모 권리와 학생의 종교적 삶’, 주성철 목사가 ‘CPS요원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기 전 준비해야 할 일들’이란 주제로 강의했으며 실제 다뤘던 케이스들을 소개하며 강의를 진행했다. 주성철 목사는 “학교당국에서 자녀에게 가정에서 부모의 훈육에 대

한 질문을 할 때 부모 입회 없이 하지 않도록 조언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 목회자나 청소년 지도자와 연락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가정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의 발언권은 차단되지만 목회자들의 이야기는 신뢰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주 목사는 “한국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학교에서 봉사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는 편”이라 지적하며 “담임교사와 유대관계를 좋게 맺을 수 있게 하고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 장소에서 자녀들에게 체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 흠스쿨링을 할 경우 집안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은혜한인교회 선교영화 감상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배질현 선교사의 삶을 그린 선교영화 ‘파파오랑우탄’ 감상회를 22일(토) 오후 6시30분에 갖는다. 입장료는 무료

▲ 문의: (909)859-9149, (213)999-9005

#### 비영리 단체 (NPO) 세금 보고 준비- 무료 공개 강의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준비 - 무료 공개 강의를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26일(수) 오후 5시 30분 오렌지 카운티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비영리 단체가 세금 보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Tax Exempt 신청 및 그랜트 신청시 필요한 Financial Statement를 어떻게 작성하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본 무료 강의는 한인 커뮤니티 및 교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준비되었으며 비영리 단체 설립과 세금보고에 관심이 있거나 비영리단체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다. 강사 제임스 구 교수(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와 그레이스 글로벌 비전스쿨 대표)

▲ 문의: (949)667-0264, (714)393-4595, icmm@church-homepage.org

#### 남가주이단대책세미나

남가주이단대책세미나가 ‘신천지의 미혹을 경계하라’라는 주제로 26일(수) 오전 10시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나성영락교회, 미주복음방송, 미주바이블백신센터, 남가주동신교회 공동주최로 열린다.

▲ 문의: (323)227-1400

#### 샌디에고주사랑교회 2025년 신년부흥회

샌디에고주사랑교회(담임 이요한 목사)는 2025년 신년부흥회를 ‘믿음으로(고후 5:7)’라는 주제로 21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갖는다. 이번 부흥회 강사는 폴킴 목사(미육군 군목 중령)이며 일정은 21일(금)과 22일(토) 오후 7시 드림센터(7750 Dagget St. Suite 201 San Diego, CA. 92111), 23일(주일) 오전 9시15분, 11시 클레어몬트 고등학교 강당(4150 Ute Dr., San Diego, CA. 92117)이다.

▲ 문의: (858)663-7432

####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창립 50주년 특별 기도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손경원 목사)는 창립 50주년 특별 기도회를 21일(금) 오후 7시, 22일(토), 오전 6시에 갖는다. 이번 기도회 강사는 김대준 목사(LA 비전교회 담임)

▲ 문의: (253)535-5803

### 선교사 자녀 위한 ‘H.O.P.E 미술 공모전’ 개최

“수상작, 가운갤러리 및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전시”

가운갤러리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가운의 빛” 프로젝트 H.O.P.E 미술 공모전이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은 전 세계 선교사 자녀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예술을 통해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 주제는 “소망의 빛을 담다”이며,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선교사 자녀이다. 회화, 일러스트, 디지털 아트 등 다양한 미술 장르의 작품을 출품할 수 있으며, 총상금은 1만 달러 규모다.

참가를 원하는 선교사 자녀는 온라인 신청서(https://forms.gle/RJEAwLo8EN3TEenAVA)를 작성한 후, 작품을 6186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로 보내면 된다. 작품명, 작가 이름, 연령, 3~5줄의 작품 설명을 반드시 동봉해야 하며, 제출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는다. 모든 출품작은 순수 창작물이여야 하며, 저작권 침해 시 심사 및 상상이 취소될 수 있다. “가운의 빛” 프로젝트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가운갤러리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교사 자녀들이 예술로 자신의 정체성과 비전을 발견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



다. 이영선 미주복음방송 사장은 “하나님께서 선교사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통찰과 감각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전하며 선교사 자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공모전은 ALPHA MENTORING과 Beverly Hills의 Scott & Jae Gallery의 협찬으로 진행되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작은 가운갤러리 및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시 및 홍보될 예정이다. 작품 제출 마감일은 2025년 3월 25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gaonartgallery@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미주복음방송)

천하며 살아가자고 권했다. 참가자들은 기도시간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하여, 지역 사회 복음화와 부흥을 위하여, 한국과 미국을 위하여, 그리고 모두의 신앙 회복과 세계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윤석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 mission 선교의 창 (255)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 사우디 시내산 비전 트립

18억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 나라일까? 내게는 미지의 세계였다. 얼른 한 영상이 스쳤다. “부르카(Burka)로 전신을 가린 채 눈만 빼꼼히 내놓은 여자들의 모습이였다.” 그것은 무섭고 경직된 사회라는 인식이었다. 나는 금년 초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우리 일행은 1월 14일 출발했다. LA 공항에서 탑승을 대기하고 있었다. 내 옆에 히잡을 쓴 여인이 있었다. 12시 정도였다. 그녀는 일어나 기동 옆 코너로 갔다. 이어서 메카를 향해 연거푸 절을 하며 기

### 1. 공항에서 만난 순례객들

1월 15일 밤 7시경 기체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제다(Jeddah)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심사대에 섰다. 많은 순례객들이 줄지어 있었다. 속옷도 입지 않은 채 하얀 도포로 몸을 대충가린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추울텐데 괜찮을까? 저들에게서 고난의 흔적을 보았다. 이슬람 계율에 따르면 하지(Hajj)는 다섯 기동 중 하나로서 모든 무슬림들이 경제적, 신체적으로 가능할 경우 일생에 한 번은 메카 성지

1월 16일 목요일, 우리는 아침 겸 점심을 호텔에서 먹었다. 긴 비행시간 탓인지 여독이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려운 걸음을 했는데 쉬 수만은 없었다. 11:45am 지프차로 나뉘어 타고 미디안 땅으로 행선했다. 오늘 방문할 곳은 모세의 우물인 이드로(Jethro)의 고향이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광야는 신기했다. 사막과 광야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연평균 강수량 250mm 이하에 달려 있다. 우리는 이국적인 정취를 즐기며 주행했다. 타북 시에서 남쪽으로 2시간 30분 쯤 달리니 이드로가 살

간 데 없네, 어즈버 태평양엘이 꿈이런가 하노라.” 모세여 나오라, 심보라여, 이드로여 지금 어디 있는가? 불러 보아도 대답이 없다. 그저 체취만 느껴질 뿐이다.

### 3. 르비딤 반석이 있는 곳

1월 17일 금요일이다. 우리는 타북 시 북서쪽에 있는 르비딤 반석이 있는 곳으로 갔다. 도로 양편의 바위산들이 아름다웠다. 조각 목 나무들도 들성들성 보였다. 이따끔 거니는 낙타들도 있었다. 땅 마르고 불쌍하게 보였다. 르비딤 반석은 두 조각으로 난 큰 바위였다. 마치 두 손을 합장하고 있는 듯하였다. 우리는 그 반석이 있는 곳까지 올라갔다. 사방을 둘러보았다. 200만 이상의 출애굽 백성들이 이 광야에 장막을 치고 물을 달라고 아우성쳤던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광야에서 목마름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장로들의 목전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 생수가 쏟아져 나왔다(출17:1-7). 이후 아말렉이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났다. 모세와 아론, 훌은 산꼭대기에서 기도도 나아가고 여호수아는 산 아래서 싸웠다(출17:8-16).

이 세계 불었다. 바닷물은 감청색이었다. 창해(滄海)에 서니 가슴이 뻥 뚫린 것만 같았다. 넓은 모래 자갈밭은 광활했다. 맞은편은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이다(출14:1). 협곡 사이의 길을 따라가면 누웨이바 해변이 나온다. 그곳은 300만 명이상이 머물 수 있는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다. 홍해바다를 건너 기념으로 솔로몬이 만든 돌기둥이 아직도 그곳에 있다 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출14:11-13). 기적의 현장에서는 말이 필요 없다. 그저 느끼고 유추할 뿐이다.

### 5. 시내산 등정

1월 18일 토요일이었다. 이번 여정의 하이라이트(Highlights)였다. 우리는 새벽 5시에 출발했다. 대원은 총 11명이었다. 사우디 가이드 3명이 동행했다. 지프차 3대로 어둠을 가르며 달려갔다. 산 입구에 내려 등산 장비로 무장했다. 매우 추웠다. 서서 간단히 요기(療

를 반복하며 마침내 12시 정도에 정상에 이르렀다. 정확히 4시간 만이었다. 우리 일행은 비록 나이가 들어도 왕년의 가락들이 있었다. 시내산 뒷부분은 검은색으로 채색되어 있었다. 풍화작용일까? 아니면 하늘 불이 저곳에 임해서일까? 나는 지팡이를 든 채 제일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 섰다. 전능자께서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출19:5-6)의 말씀을 묵정했 외쳤다.

### 맺음 말

1월 19일에 우리 일행은 시내산 근처 12돌 재단과 큰 무덤 터, 1월 20일에는 황량한 광야 가운데 있는 고고학 유적지를 둘러보고 오후에 타북 공항으로 향했다. 1주일일 금새 지나갔다. 모든 일정을 큰 대가 없이 잘 소화했다. 아침저녁으로 짬을 내어 갖은 경건의 시간과 특강도 유익했다. 이렇게 귀한 Trip을 이끌어주시는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금 번 일정의 주된 수확은 무엇인가? 첫째는 비록 일부지만 사우디 땅에 발을 딛고 이들의 생활환경과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우디 맞아? 싶을 정도로 개방되어 있고 사람들도 친절했다.

## 2019년 18억 이슬람의 종주국이 문호를 개방했다. 사우디에는 성경이 언급한 유서 깊은 장소들이 여럿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현장을 답사할 수 있음은 큰 특권이다.

도를 했다. 나는 그 광경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렇게 혼잡한 곳에서도 신앙행위를 한 모습에 도전이 되었다. 우리를 태운 터기 항공은 북극항로를 따라 눈 덮인 그린란드를 거쳐 이스탄불에 기착했다. 출발이 지연된 관계로 뛰다시피 해 사우디 제다행 비행기를 갈아탔다. 오랜 비행 끝에 우리는 사우디 영공에 이르렀다.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조금 긴장이 되었다. “주님! 저희를 지키시고 여정을 평탄케 하옵소서. 불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땅 백성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사 생명의 빛으로 자유케 하옵소서.”

순례를 해야 한다. 메카는 제다에서 70~80km 떨어져 있다. 그리 멀지 않기에 순례객들은 이 공항을 통한다. 따라서 제다 공항은 년 중 참배객들로 분주하다. 우리 일행은 또다시 국내선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다. 최종 목적지는 타북(Tabuk)이었다. 새벽 4시 정도였다. LA 집을 떠난 지 32시간 만에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다. 피곤이 엄습했다. 사우디와 미국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다. 모든 것이 다른 두 나라! 나는 이 거리만큼이나 마음의 거리도 있었음을 느꼈다.

### 2. 모세의 우물과 이드로의 고향

있었던 동네가 나왔다. 황토색의 구름지 언덕에 들성들성 주거(住居) 굴들이 있었다. 시신을 매장했던 곳도 있었다. 모세가 심보라를 만났던 우물도 보였다. 지금은 폐쇄되어 샘안을 볼 수 없었다. 정말 모세가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말인가? 가능하다면 타임머신(Time Machine)을 타고 3,500년 전으로 가 당시의 생활상을 보고 싶었다. 그나마 이 땅은 강우량이 적고 도회지가 아니기에 태고적 환경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불현듯 고려 시대때 길재가 쓴 시조가 떠올랐다.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찾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결은

결국 승리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닮은”을 외쳤다. 뜻 깊은 장소에 오니 감회가 새로웠다. 우리가 등산하고 내려오니 사우디 가이드들이 천막을 치고 메추라기를 구워주었다. 광야의 텐트 안에서 먹는 그 맛은 잊을 수 없다. 대추를 넣어 끓인 사우디 홍차도 일품이었다.

### 4. 홍해바다

1월 17일 오후였다. 우리는 점심 후 아카바 만에 도착했다. 모세가 출애굽한 후 바다를 가른 장소가 여기란 말인가? 여러 학설이 있지만 아카바 만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바람

뿔)를 했다. 아직 일출이 안 되었으나 산 정상에 어렵듯이 보였다. 사우디에 있는 시내산은 해발 2850m이다. 백두산 2744m보다 높다. 등정하는 데만 5-6시간이 걸린 매우 가파른 산이다. 우리는 해가 솟을 무렵 등산을 시작했다. 길이 없는 돌작발 사이를 헤치며 전진했다. 조금 가니 70~80도 이상의 경사진 곳에 맞닥뜨렸다. 상당히 위험했다. 두 손과 발 등 전신을 밀착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평상시 운동을 안 하다가 등산하니 숨이 헉헉 찼다. 모세는 어떻게 이 험한 곳을 8번이나 등정했을까? 사우디 청년 가이드는 제비처럼 사뿐사뿐 잘도 올라갔다. 가다 쉬고

둘째는 시내산, 홍해 등 모세 5경에 기록된 역사적 장소들을 직접 탐방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이재환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단체장들과 함께 교제하며 유쾌한 시간을 보낸 것이다. 나는 유머가 많은 가이드: 아달라와 약속하며 헤어졌다. 이제 차도르를 걸친 무슬림 여자들도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1주일 새 내가 변한 것일까? 이 땅을 떠나면서 빛진 마음이 들었다. 내가 할 역할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호와와의 눈과 마음이 여기에 항상 있으시옵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리라.

Jrsong007@hanmail.net

##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미국, 중동선교전략가)

### 37강 요나단, 다윗 (1-3) (사무엘상 13,14, 16-20장)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사울도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 골리앗 전투에 소년인 다윗(삼상 17:33)이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다윗에게 자기의 겂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줍니다(삼상 18:1-4). 이후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군대 장관이 됩니다(삼상 18:5). 그런데 전쟁에 나갔던 무리가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도’(삼상 18:7)라고 합니다. 사울은 이 여인들의 노래에 불쾌하여 매우 화가 나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삼상 18:8,9)고 합니다. 이제부터 사울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분명 전쟁의 승리는 기쁨입니다. 대적 블레셋을 무찌르고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다윗도 백성도 기뻐하고 심지어 사울 왕의 첫째 아들로서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요나단도 기뻐하는데 오직 한 사람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이 땅에서의 왕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같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도 안되고 백성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왕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백성은 ‘내 백성’이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일 뿐입니다(삼상 15:30). 사울은 비록 승리를 하였지만 자신보다 다윗이 더 높아지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예에도, 백성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울의 왕 자리 지키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말대로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전행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사울만의 모습이 아니라 백성에게 더욱 두려운 존재가 되고 다윗의 이름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삼상 18:29,30).

죽일 수 없는 자, 죽을 수 없는 자

이 때부터 사울은 기회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삼상 18:9-30). 직접 창으로 죽이려고(삼상 18:9-11), 간접으로 전쟁터에서(삼상 18:13,14) 심지어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도 블레셋에 의해서도(삼상 18:17-27)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그럴때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삼상 18:12,14,28). 또한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심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삼상 23:14)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수록 다윗은 사울에게 더욱 두려운 존재가 되고 다윗의 이름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삼상 18:29,30).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울은 그의 모든 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고 대적들과의 싸움에 사용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돕습니다(삼상 19:1-5). 사울도 때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도 하지만(삼상 19:6)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합니다(삼상 19:8-10). 그리고 이번에는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도와 줍니다(삼상 19:11-17). 다윗은 도망을 가서 사무엘에게 갑니다(삼상 19:18). 그러자 이번에는 사무엘이 다윗을 돕고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정령을 3번이나 보내지만 그들이 가서 예언만 했지 다윗을 못잡자 사울이 직접가는데

사울도 예언을 합니다(삼상 19:19-23).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다윗을 죽일 수 없고 다윗도 그의 부르심을 이룰 때까지는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 요나단의 사랑

요나단이 있습니다. 이후 사울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삼상 20:31)는 말과 같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사울 왕의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요나단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이룬 승리를 기뻐할 뿐 아니라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세상에 속해 세상 것을 추구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을 돕는데(삼상 20:1-42) 사울은 심지어 다윗을 돕는 요나단도 죽이려 합니다(삼상 20:33). 요나단은 다윗에게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삼상 20:4)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끌어 버리지 말라’(삼상 20:14,15)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반드시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지 않다면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후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내 형 요나단이며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삼하 1:26)라고 할 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습니다(삼상 20:42).

세상에서는 왕으로 왕의 힘을,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께 버려진 사울과 아직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도망자의 신세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생명 짚개로 지키시는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다윗을 통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실 하나님의 열심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에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회복의 길 (삼하 12:1-14) 찬 395장

유혹은 언제나 신자의 길에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 숨어있습니다. 다윗은 이 타락을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첫째, 유혹이란 고난보다 승리 후에 더 자극적으로 찾아옵니다. 긴장 속에 사는 고난보다 번성의 때가 더 위험한 순간입니다. 밧세바를 보고 발동한 욕심으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죄를 가리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둘째, 그러나 성령의 책망을

듣고 회개할 때 즉각 용서를 받았습니다. 시편 51편에 나온 영적 고통과 고백을 보아 죄짓는 순간, 다윗 속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책망하시며 큰 자비를 일하셨습니다. 죄악에 대한 자신의 비참 상태를 드러내실 때 거듭난 다윗은 즉각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참 예배는 참 회개를 통한 상한 심령으로 이루어집니다.

화 악을 선용하는 지혜 (삼하 15:1-37) 찬 461장

악을 선용하는 지혜는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일찍이 요셉에게 보여진 그 지혜가 다윗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도망가는 자기 상태를 비난하며 티끌을 날리는 시므이 비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며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역울한 일을 하나님이 자세히 아시고 허락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는 부하의 강권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 손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갚으시는 손을 보고 참 회개의 자리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을 보았습니다. 원통함을 아시고 역울함을 회복하시는 형통의 날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경외심만이 악을 선용할 수 있습니다.

수 참된 피난처 (삼하 17:1-14) 찬 94장

잔인한 세계가 천하를 주름잡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의만이 반드시 세워집니다. 압살롬의 배은망덕과 거기에 동조한 아히도넬의 계략으로 다윗 왕이 완전히 망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아히도넬의 모략을 폐하고 후세의 모략을 선택하게하신은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는 하나님의 작정의 성취였습니다. 합리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일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 함이 허사가 됩니다. 현재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말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그분만을 의지하여 하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목 신자 복의 진면목 (삼하 22:1-20) 찬 49장

주전 1200년 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오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만을 절대주주로 믿은 증거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첫째, 다윗은 아브라함과 바울의 신앙과 같은 오직 여호와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하나님이란 한마디로 오직 예수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예수뿐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예수 신앙만이 구원이고 복이고 복음입니다. 둘째, 다윗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말씀의 피난처로 달려가 그것을 조용히 따랐습니다. 그 결과 환난 날에도 그는 암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에 뛰어다녔습니다. 이기는 은혜는 오직 예수의 신앙, 오직 말씀의 신앙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자가 받은 복의 진면목입니다.

금 원 복음의 길 (삼하 22:21-28) 찬 241장

다윗은 환난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숨었습니다. 환난 당할 때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규례를 앞에 두고 의를 따르며 악을 행치 아니하였고 스스로 악을 피했습니다. 성경의 피난처에 숨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거머리처럼 성경에 달라붙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갓으셨습니다.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로,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으로, 깨끗

한 자에게 주의 깨끗함으로 갓으시나 사특한 자에게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십니다. 끈고하여 겸손한 자에게는 구원을 보이지만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아집니다. 동생에 죄를 은근히 동조하는 세상 분위기로 고통하는 현대 교회는 원 복음인 성경으로 돌아가 거기에 착념하여 그 속에서 펼쳐지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만이 회복의 길입니다.

토 영원한 언약 (삼하 23:1-7) 찬 408장

높이 올리우신 아픔의 하나님을 섬긴 다윗에게 주어진 영원한 언약은 어떤 삶을 약속하는가요? 4절에서 세 은유로 표현된 약속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일출의 햇빛, 구름 없는 아침 햇빛, 비 온 후에 돌아오는 풀 위에 머문 햇빛의 밝음이라 했습니다. 모두 빛의 성격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정말 다윗은 환난 속에서도 늘 소망이 있었고 풍요와 새로움의

빛 안에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 좋은 일을 체험했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따스로운 보호를 체험했습니다. 그의 피난처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확신은 복음 안에 있는 신자에게도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신자는 빛의 능력과 영향을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11)



제임스 구 목사 (그레이스비전스쿨 대표)

문서 작성용 AI 도구(AI TOOLS FOR WRITTEN CONTENT)의 활용 (1편)

문서 작성용 AI 도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글을 작성하며, 편집하고, 요약해 주며, 번역 및 교정 기능을 제공해 주는 도구들이다. 문서 작성용 AI 도구들은 활용하여 개인, 기업, 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사용자들은 매우 효율적으로 자신의 글을 작성할 수 있다.



문서 작성용 AI 도구들을 사용하여 글쓰기를 위한 기초적인 초안 생성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작성을 원하는 글쓰기 내용을 입력하면 문서 작성용 AI가 글쓰기 내용을 기반으로 블로그, 기사, 보고서, 소설, 이메일, 공식 편지, 계약서,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문서를 작성해 준다. 이러한 예로 OpenAI의 ChatGPT, Google Gemini, Microsoft Copilot Jasper AI, Copy.ai 등이 사용된다.

목적에 맞는 도구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어 및 문법 교정을 위해서는 Grammarly, Hemingway Editor 등을 선택한다. 일반적인 콘텐츠 작성을 위해서는 ChatGPT, Gemini, Copilot, Jasper AI, Copy.ai 등을 선택한다. Advanced 번역을 원하는 경우 DeepL 등을 선택할 수 있고 문서의 요약을 원하는 경우 QuillBot, Resoomer 등이 적합하다.

또한, 문서 작성용 AI 도구들을 사용하여 문법 및 맞춤법 교정이 가능하다. 문서 내 존재하고 있는 문법적 오류, 철자 실수, 문장 구조 등에 대해서 자동으로 검색하고 수정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 이러한 예로 Grammarly, LanguageTool, Hemingway Editor 등이 사용된다.

문서 작성 AI 도구들을 활용하는 글쓰기를 할 때 중요한 Tip이라면 효과적인 프롬프트 입력이다. 사용자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요청할 경우 더 정확한 글쓰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간암으로 입원하신 김 권사님을 위한 위로의 편지글을 100자 정도로 작성해 주세요."

작성된 글에 대한 스타일 개선 및 가독성 향상시킬 목적으로 문서 작성용 AI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 문장의 길이, 문체, 단어 선택 등을 분석하여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글의 스타일과 문장 등을 수정해 준다. 이러한 예로 Hemingway Editor, Grammarly 등이 사용된다.

문서 작성 AI 도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의 결과물을 최종 검토하고 편집을 해야한다. 즉 AI가 생성한 글을 직접 사용자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부자연스러거나 어려운 문장들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 한다.

또한, 긴 문서를 분석하여 AI 도구가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핵심 내용만을 재생산해 주는 기능을 가진 문서 작성용 AI 도구들이 있다. 이러한 예로 SMMRY, QuillBot, Resoomer 등이 사용된다.

문서 작성 AI 도구 활용하는 경우 빠르게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 가능하며, 문법 혹은 읽는 구독자들의 가독성을 개선할 수 있고, 다국어 번역을 지원함으로써 언어권이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적이고 SEO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문서 작성용 AI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AI 학습을 기반으로 한 다국어 언어 번역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글 쓴 문서를 다양한 해외 언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OpenAI의 ChatGPT, Google Gemini, Microsoft Copilot 모두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Google Translate 서비스 혹은 DeepL 같은 전문 번역 AI 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아직 문서 작성 AI 도구 활용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서 작성용 도구들은 매우 창의적이거나 특별한 감성적인 글을 쓰기에 아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주의할 것은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100%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즉,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서가 때로는 부정확하다는 것이고 또한 민감한 정보나 기밀 문서는 AI에 입력할 경우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검토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문서 작성용 AI 도구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AI를 기반으로 한 협업 및 문서 관리를 지원하는 문서 작성용 AI 도구들로 Notion AI, Google Docs AI 등이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팀원들과 실시간 협업하며 AI가 자동으로 피드백 등을 제공해 준다.

dr.jameskoo@yahoo.com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신간 Asian Church History를 출간하며...”

아시아교회 역사가 왜 중요한가?

아시아신학교에서 교회를 강요할 때 강의 내용은 서양 교회사 (초대교회, 중세기, 종교개혁, 현대교회사)를 가르치게 된다. 기독교는 중세기 (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서유럽의 천주교와 동유럽의 동방정교는 초대교회로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다. 특별히 16세기부터 서양 천주교와 개신교 선교사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파송되어 오랫동안 선교사역을 하여 선교역사를 초래하게 되었다.

시대는 변하였다. 오늘의 아시아 인구는 전 세계 80억의 인구 중 60% (5억)를 차지하고 있다. 1800년의 세계인구는 9억7천800만 (978,000,000)이었다. 그 중 208,000,000명이 (23.1%의 인구) 기독교인이다. 전 세계 2억8000만의 기독교인의 86.5%가 백인 크리스천이었다. 1793년에 영국 선교사 William Carey가 인도 동북쪽의 Calcutta에 도착했을 때 아시아의 인구는 단지 602,000,000이었는데 기독교인은 극소수인 0.2%밖에 안 되었다. 그러므로 18세기-19세기에는 아시아교회 역사에 대한 글을 쓸 자료가 얼마 없

었다. 지난 2세기 동안 두 개의 인구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로 현재 아시아의 인구는 급속도로 성장하여 세계인구의 60%를 차지하게 되었다. 둘째로 전 세계 기독교인의 60%가 제3 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과 북미 (미국, 캐나다)의 기독교는 나날이 쇠약해지는 상황이며 제3 세계 교회는 놀라운 교회 성장을 이루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아시아 수 개국에서 급속도 교회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중의 하나는 한국교회 성장이다. 한국 CCC 총재인 김준곤 목사는 1970년도에 한국교회 성장율은 하루에 6개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아시아신학협회 (Asia Theological Association)는 1978년에 김준곤 목사가 Asian Perspective 잡지에 "Six New Churches Everyday" 글을 (12 페이지) 써서 전 세계교회에 알리게 되었다. 중국의 덩샤오핑 주석이 10년 동안 (1980-1990) 정권을 잡으면서 "중국현대화"를 부르짖으며 중국을 개방시켰다. 외국선교사들을 용납하며 제한된 종교자유를 허락하며

놀라운 교회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개신교인이 8000만 천주교인이 2000만 총 1억의 중국기독교인을 초래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필리핀의 개신교인 16,300,000명 (인구의 24.7%), 싱가포르 (17%), 인도네시아 (15.8%)로 성장하였고 그 외 대만, 네팔, 몽골리아에도 교회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아시아교회는 전에는 선교사를 받아들이기만 했지만, 이제는 아시아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국이 되었다. 여러 선교사 단체에서 발표한 아시아 선교사의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통계는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30,000), 한국 (24,000), 인도네시아 (3000), 싱가포르/말레이시아 (1,200), 필리핀 (650), 일본 (510), 대만 (560), 홍콩 (500), 태국 (60), 중국 (1,000-2,000). 아시아 선교사의 수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며 하나님은 아시아교회와 선교사에게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는 OMF선교사로 30년간 (1970-2000) 싱가포르, 대만, 한국과 그후 20년간 (2000-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신학교에서 교회사와 선교학을 가르친 배경으



노봉린 교수 전 AGST-Pacific 총장 아시아신학협회 총무

로 Asian Church History (575 페이지)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2024년 9월에 서울/인천에서 모였던 제4회 로잔대회 전에 한국에서 출간되었고 이 대회에 참석한 많은 세계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였다. 책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시아의 25개국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하여 교회 성장을 이루었으며 현재 아시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나날이 증가하는 교회 압박과 다양한 도전에 대해 다루게 되었다. 300권을 출간하여 200권은 경제적으로 미약한 아시아국가에 있는 신학교 도서관에 무료로 제공하였다. 일본으로부터 서아시아/중앙아시아까지 45개 아시아국가에 1,300개 신학교와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Digital/Internet로 이 책을 전달되기를 원하며 신학생들과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아시아교회를 잘 이해하고 아시아복음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rohonlulu@gmail.com

세계 교고에 이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중국

▲ 종족명 후이저우 한 종족

▲ 인구 약 4,600,000명

▲ 종교 민속 종교 36%, 무교 35%, 불교 20%, 복음화율 9%

▲ 복음매체 성경번역 필요, 복음 녹음 있음

▲ 종족 프로파일 어떤 언어학자는 후이저우 한어는 한어 계통에서 분명히 구별되는 하위 언어라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상업과 재리에 밝은 것으로 유명하다. 공산국가 설립 이후 오히려 기독교가 왕성히 일어나 이들이 사는 지역은 전국에서 그리스도인의 분포가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이다.

▲ 기도제목

- 1.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인 만큼 구별되는 언어로서 조사가 속히 이뤄지고 진어 성경 번역이 시작되도록
2.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휴대폰 사용 습관...

(1면에서 계속) 권한 구조가 바뀌었다

여러분은 아마도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친구들과 하이킹을 하며 대화와 주변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는데 누군가가 소셜 미디어에 그 순간을 담기 위해서 휴대폰을 꺼낸다고 생각해 보자. 그 순간 시공간의 역동성은 단숨에 바뀐다. 풍경은 더 이상 단순한 풍경이 아니다. 모든 것이 잠재력을 가진 콘텐츠 재료가거나 셀카의 배경이 된다. 하이킹은 더 이상 당신과 친구들에 관한 게 아니다. 방송할 무언가, 온라인에서 평가하고 토론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바뀌었다.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 중에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거나 노트북을 여는 순간, 회의실의 권한 구조(조직 내 권한 및 책임의 관계)가 바뀐다. 오로지 현재에만 집중하고, 정말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느낌, 회의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기

대가 줄어든다. 산만해지는 걸 피할 수 없다. 심지어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집중하기로 결심한 사람조차도 이 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 설교 중에 근처에 앉은 누군가가 인스타그램 스크롤하는 것을 보는 순간 분위기가 바뀐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건 이제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만, 당신은 이제 온전히 거기에 집중하는 교인들과 같이 있는 게 아니다. 반쪽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산만하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모두에게 가능한 옵션이 되었다.

리틀존은 다음과 같이 가정되는 역효과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집단행동과 관련한 최악의 문제는 어떤 추세에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거기에 동참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회의장에서 휴대폰에 머리를 처박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되겠다고 아무리 결심해도, 휴대폰 위로 빠져나온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보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존재를 회복하라

우리가 아는 것보다 행동은 더 깊게 연결되어 있다. 아들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딸과 이야기할 때 휴대폰에 주의를 기울이면 또 중간 중간 메시지까지 보내며, 내가 그 순간을 온전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더 나쁜 건 그런 행동이 사실상 “당신은 내게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다. 아이들과 영화를 보면서 휴대폰으로 멀티태스킹을 하고 이메일을 확인한다면, 그건 단지 나로 끝나지 않는다. 옆에서 영화를 보는 아이들의 경험까지도 바꿔버린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원칙이 여기에 적용된다. “모든 것이 허락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는 않는다(고전 10:23-24).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한다. 그리스도인

으로서 우리는 나의 선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당신은 고립된 섬이 아니다. 당신의 휴대폰 습관은 결코 당신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디지털 선택은 나의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온라인 행동에는 파급 효과가 있다. 거울 속의 나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힘을 합쳐 기기의 방해 받지 않겠다고 서로 동의하는 시공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눈에 띄지는 않지만 중요한 문화적 퇴보의 흐름에 동참하고 말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휴대폰을 더 사용하느냐 덜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온전히 현재에만 집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개인의 결정이 집단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by Trevin Wax, TGC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Worldwide Church Directory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and '서부(CA)교회안내'. Churches listed include 감사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단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동장로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사망교회, 세계선교회, 살비치 사랑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사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평강교회, and 미주크리스천신문 후원교회.

이성자기자의 **바이블 에세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

오늘도 여전히 태양은 떠오르고 새날이 밝았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루를 더 살아가게 된 생명의 신비를 느끼면서 또 한날을 살게 되었다. 어제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오늘을 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날마다 진지한 삶의 태도와 성실함 가운데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순수한 삶의 의지를 갖는다. 세상에 희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성공을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희망을 꿈꾸고 삶을 아름답게 설계할지라도 인생은

사실상이 세상에 실재 없이 성공한 사람이 없고 좌절감을 한 번도 느끼지 않고 용감하게 행동한 사람이 없다. 오히려 모든 난관을 딛고 일어서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성공한 경우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유대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청운의 꿈을 안고 열심히 살았던 두 젊은이가 있었다. 그들은 당시에 유대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선봉을 일으킨 나사렛 예수님에게 거의 맹목적으로 반해 있었다. 그를 통해서 어떤 커다란 야망을 성

했다. 꿈은 산산조각으로 깨지고 말할 수 없는 허탈감에 사로잡혀서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저물어

어뜨린 채 말이다.   
나는 종종, 아니 너무 자주 이들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뛰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인가? 내 앞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긴 세월의 흔적과 텅 빈 공허함만

여기에서 나는 나 자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의 전환점을 기대하게 된다. 유턴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말이다. 나의 삶에 변화를 줄 삶의 동반자는 누구인가? 나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불어넣을 동반자는 누구인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싸늘하게 식어버린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실 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뿐이다. 그분은 나의 긴 삶의 여정을 함께 해온 동반자였건만, 오늘 새삼 그 동반자와의 새로운 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눅 24:32)

부단히 실망하고 수없이 실패를 경험한다. 특히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패배를 경험하게 한다.

취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군병에 의해서 무참하게 십자가형을 당해 죽고 말았다. 이들은 실망

가는 황혼의 석양에 긴 그림자를 보듯 위에 드리운 채 옛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두 어깨를 처량하게 힘없이 축 늘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나에게도 꿈이 있었다. 나에게도 야망이 있었다. 성실한 삶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나는

이 가득 한 채, 어두워 가는 석양 길을 힘없이 걷고 있지 아니한가?

남과 동행이 절실하다. 나의 영원한 동반자 그 이름 예수!!

베드로 진서 39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말씀과 삶

골프를 좋아하는 분인데 그렇게 골프를 좋아하지만, 문제는 장타를 치고 나면 공이 어디 떨어졌는지 몰라 자주 잃어버린다. 잃어버린 공을 찾다 보면 뒤에서 따라오는 팀들이 신경이 쓰여 도무지 골프를 마음 놓고 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프로 샵에 가서 자신의 골프를 도와줄 캐디를 한 명 구했다. 단지 조건은 골프공을

잘 볼 수 있는 캐디여야 했다. 그렇잖으면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다음 날 샵에서 구해준 캐디와 함께 나서며 당시 정말 공을 잘 보는가? 했더니 독수리 처럼 분다고 했다. 1번 홀에서 쳤는데 캐디가 있어서 그랬는지 또 장타였다. 멀리 가는 것을 보고 잘 봤는가 하고 물었더니 “잘 봤습니다” 하는 것

아닌가. 근처쯤 가서 공이 어디 있는가? 하고 물는데 그 역시 헤매고 있었다. 독수리처럼 잘 봤다면? 하고 따져 묻자 보긴 잘 봤는데 어딘지 잊어버렸다고 했다.   
만든 이야기 같은데 우습기도 하나 슬프기도 했다. 슬픈 것은 우리 모습 때문이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받았다면서, 성경 읽고 할렐루야 아

멘 하며 말씀대로 살겠다면서 어떤 상황에 부닥치다 보면 아무렇게나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 모습이 그렇게 슬프게 느껴지는 것이다. 보기는 봤으나 잊어버린다면... 은혜는 받았으나 실생활에 효과가 없다면...   
revpeterk@hotmail.com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6월 29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 고시과목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 제출고시 내용

- 구약주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주해하라 (사무엘하 23:13-17)
- 신약주해: 개혁주의 관점에서 주해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13-18)
- 논문제목: 현대미 시대 교회 밖 성도들의 회복과 양육전략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논하라
- 설교본문(하나 택일): 구약 - 레위기 16:1-10 제목/광야로 보내진 아세셀 염소 신약 - 요한복음 12:27 제목/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이다

###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전통진구약주해.pdf)

### 면접고시

### 서류제출방법

-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5년 3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5년 3월29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합격자 발표는 49회 총회기간(5월 27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5년 5월 26일(월)~27일(화)  
장소: Grandover Resort & Spa. A Wyndham Grand Hotel  
1000 Club Rd, Greensboro, NC 27407 / (336)394-1800

### 제출서류

-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5년 6월29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 명함판 사진 2장
-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 참고사항

-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전통진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5,26) 사용할 속소를 예약할 것.
-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 제출처

고시부 서기 : 전통진목사 (Rev. David Chun)  
주소 : 2201 Gramercy Way, Mt. Laurel, NJ 08054  
전화 : (856) 359-5345 / 이메일 djchun5882@gmail.com

###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 김요섭목사 (Rev. Joseph Kim) redeemer@gmail.com  
고시부 서기 : 전통진목사 (Rev. David Chun) djchun5882@gmail.com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권혁천 목사  
서 기 : 김대업 목사  
고시부부장 : 김요섭 목사  
고시부서기 : 전통진 목사